

# 시민과 함께 디지털 시정 구현

### 군산시, 디지털격차 해소 위한 데이터 개방부터 행정서비스 지원까지

군산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시정구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국민신문고 및 120생활민원 분석, 청년일자리 빅데이터 분석, 돌봄센터 입지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는 1인가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부서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 등 책임과 신뢰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마인드 확산 등을 위해 시민정보화 교육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장소는 시청(8층) 전산교육장과 수송동 시립도서관(4층) 전산교육장 2개소이며, 991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활용, 인터넷활용, 스마트폰입문, 스마트활용, 문서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이미지편집, 영상만들기 등 9개과정으로 53회에 걸쳐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또, 시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수준별 디지털 교육 수강이 가능한 디지털배

너머 13개소 디지털 체험존 및 찾아가는 디지털 에듀버스 등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34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능기계입대사업장·관광지·공원 등 공공장소 35개소에 무선 AP(공유기) 47대를 설치해 12월부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과연 안전한가?

### 한경봉 군산시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발언의 요지를 ‘어린이 보호구역’ 과연 안전한가? 라고 소개하고 어린이보호구역별 승차차 안심 구역 지정을 서둘러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것과 운전자 시야를 넓히는 안전 대책에 대한 행정적 노력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총 15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필요한 통학 차량과 학부모 차량 역시 주차장 위반의 대상이 되어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에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는 마땅한 승차차 안전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 소재 초등학교 주변에서 살펴본 결과, ‘학부모들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아이들을 데려다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를 세우고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2시간 이상 14만 원)으로 상향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12월 24일에 개정된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말하며, 특개법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속도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법률 개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 강화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금지와 단속이 심화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필요한 통학 차량과 학부모 차량 역시 주차장 위반의 대상이 되어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에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는 마땅한 승차차 안전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 소재 초등학교 주변에서 살펴본 결과, ‘학부모들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아이들을 데려다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를 세우고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 지역 소식 통

### 군산청소년수련관 환경 포럼 개최

군산시는 군산청소년수련관(관장 이원영)이 ‘청소년시설 생태전환 활동의 방향! 청소년 시설은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월명공원 편백나무 숲에서 지난 1일 환경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 포럼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을 위한 청소년시설 생태전환에 대한 방법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시설 생태전환 활동의 방향·지역의 생태전환 활동의 필요성·청소년 참여활성화사업 사례 발표·청소년활동·생태활동 접목 사례·환경교육의 실제 및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포럼에서 사례발표를 한 김하정, 조재희 청소년은 “포럼 준비를 하며 환경보존을 위해 생태전환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 군산시, 2023년 올바른 반려문화 육성 교육 추진

군산시가 성숙한 반려 문화 수준 향상 및 생명 존중의 중요성 인식 함양을 위해 2023년 올바른 반려 문화 육성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길고양이 종성화 사업(TNR) 운영 단계인 사단법인 ‘묘연’의 협조를 통해 더 홀로스 아카데미의 정수아 대표를 초청해 지난달 22일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매주 일요일 총 5회 일정으로 진행된다.

반려동물들을 통한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이해 및 길고양이로 인한 분쟁 해결 등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 목표물, 반려동물 핏캣과 길고양이 종성화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캣케어 마사지 및 수제 영양키친 만들기 등 실습 교육이 동시에 진행된다.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한 만큼, 늘어나는 반려동물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소 럽피스킨병 공급백신 100% 완료... 방역 속도전

### 익산시, 2일 기준 4만마리 93% 접종완료... 오늘 백신공급분 100% 완료

익산시가 전국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소 럽피스킨병 차단을 위해 긴급 공급백신접종을 3일 100% 완료했다.

2일까지 공급백신 4만2230마리분 중 3만9669마리가 접종을 마쳐 93%가 넘는 접종률을 보였다. 전국 일제 접종 기한이 10일까지지만 시는 3일까지 백신접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빠른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백신접종 속도전을 펼쳤다.

우선 지난 10월 27일 충남 논산 소재 럽피스킨병 발생 농장(10.27.) 방역대(3~10km)에 포함된 지역 농가 21호(전업 6호, 757두, 소규모 15호 339두)

에 대해 충남 논산에서 백신을 우선 공급받아, 관내 공수의사(5명)를 동원해 1096마리에 긴급 백신을 접종했다.

일제 백신접종 개시를 위해, 28일 백신과 지역 공수의사를 확보하고 28일부터 19개 읍면동과 공수의사 6명에게 4만2230마리 분량의 백신을 공급했다.

소 사육농가에는 근무주사가 아닌 피하주사로 백신 수령 즉시 예방접종 완료토록 안내해 소 럽피스킨병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전업농(50두)은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영세농(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사를 동원해 접종 중이다.

전체 사육 중인 한우 및 젖소 42,982마리 중 이번에 공급받은 4만 2230마리 분량에 대해서는 3일까지 백신 접종이 모두 완료됐다.

다만 백신공급 부족으로 전체 2% 정도에 해당하는 미접종 700여 마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긴급 백신방역’과 함께 ‘긴급방역’을 통한 이중방역 체제에 돌입했다.

국내 발생이 없던 재종 가축전염병인 소 럽피스킨병(LSD)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돼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성명서 채택

### 김우민 군산시의원 대표발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일 제259회 2차 본회의에서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김우민 의원은 “정부는 최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역 및 필수 의료 붕괴위기 극복’은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선언했다”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의료보장을 공언하고 있지만 현재 군산지역 의료시설 인프라가 빠르게 축소되면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법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군산 지역의 열악한 의료인프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군산은 의료사

가 필요한 고품질 인구가 증가추세지만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1.3명보다도 적은 2.06명에 그치고 있어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은 서해안의 해양주권 수호 필수지역으로 국토방어 및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비상사태에 대처할 해상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군산은 새만금지역 개발과 함께 수십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돼 의료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료전문의 배출에 10년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군산지역에 의료인력 양성 인프라를 구축할 적기이다”고 강조하며 “의료인프라 축소와 인구유출, 지방소멸 가속화가 계속되는 이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의료취약지 및 지역에 남아 활동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이 시급하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군산대학교는 이미 1995년부터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타당성 연구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 익산시, 장애인건강관리정책 공모전서 복지부장관상 수상

익산시가 추진하는 장애인건강관리정책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익산시 보건소의 ‘신체활동마당실’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에 선정돼 2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은 전국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센터, 권역재활병원 등 총 128개 기

관을 대상으로 적절성, 효과성, 협력성, 노력성 등을 평가해 재할사업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한 35개소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보건소의 ‘신체활동마당실’ 프로그램은 지역 등록장애인 중 성인 지적·뇌병변 장애인 36명을 대상으로 재활요구도를 평가하여 맞춤형 재활운동을 제시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교실이다.

사업 대상자들의 분기별 기초건강측

정(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과 반기별 재활전문의 건강상담을 통해 건강상태가 개선되었고, 만족도가 높아 정책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재활요구도가 높고 관절 구축이 심화된 대상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소그룹 재활운동프로그램과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2차 장애 예방효과도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